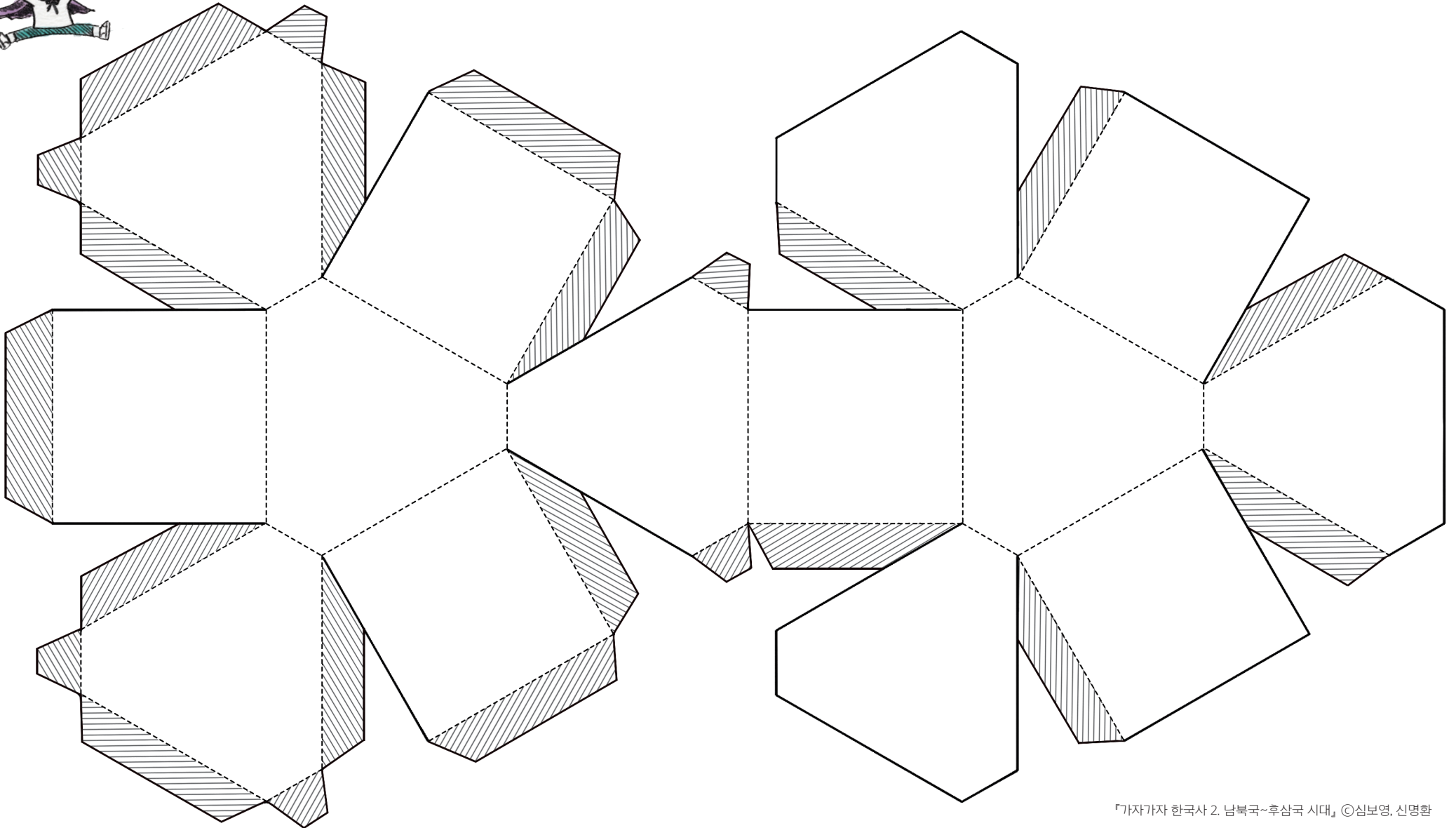




신라시대 주사위 주령구 만들기

14개의 면에 나만의 벌칙을 적은 후, 전개도를 잘라 주령구를 만든 후 주사위 게임을 해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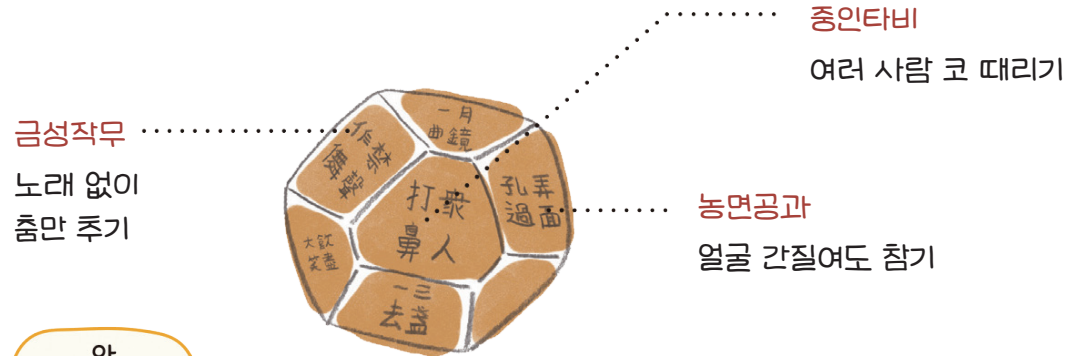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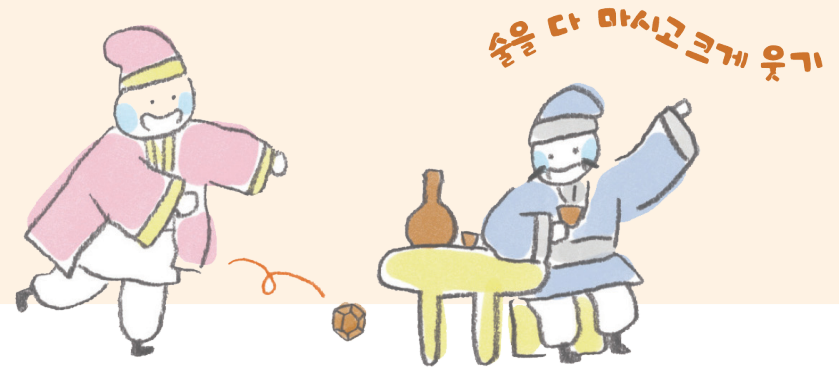
- 자르기
- 접기
- /////// 풀칠하기



주령구는 1975년 경주 동궁과 월지(안압지)에서 출토된 정사각형 면 6개와 육각형 면 8개로 이루어진 14면체 주사위야. 신라시대 왕과 귀족들이 술자리에서 사용하던 놀이 도구로, 각 면에는 점 대신 재미난 벌칙들이 적혀 있어.

주령구에 적힌 벌칙

- 금성작무(禁聲作舞) 노래 없이 춤만 추기
- 중인타비(衆人打鼻) 여러 사람 코 때리기
- 음진대소(飲盡大笑)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
- 삼잔일거(三盞一去) 술 석잔을 한번에 마시기
- 유범공과(有犯空過)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가만 있기
- 자창자음(自唱自飲)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
- 곡비즉진(曲臂則盡) 팔을 구부려 다 마시기
- 농면공과(弄面孔過) 얼굴 간질여도 참기
- 임의청가(任意請歌)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
- 월경일곡(月鏡一曲) 월경 노래 한 곡 부르기
- 공영시과(空詠詩過) 시 한수 읊기
- 양잔즉방(兩盞則放) 두잔이 있으면 즉시 비우기
- 추물막방(醜物莫放)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
- 자창괴래만(自唱怪來晩) 스스로 괴래만을 부르기(도깨비 부르기) 또는 늦게 왔다고 탓하며 스스로 노래 부르기



이 주사위는 복제품이야. 처음 발견된 것은 보존 처리 중에 불타서 없어졌단다.